

연구와 전시

국내 최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한 2년

18세기 금사리^{금沙里} 백자 이야기

물에서 함께 누리는 섬의 문화유산

사람과 이야기

오름 위에서 만난 바다, 국립제주박물관

돌고 돌아 한자리에, 어쩌면 만나지 못했을 귀한 인연

생각의 변화를 넘어 깨달음으로 향하다

K-뮤지엄

기증으로 빛낸 올림픽 정신





04

대단원 앞둔 〈메소포타미아, 저 기록의 땅〉



10

국립중앙박물관 심화전 〈달항아리를 만든 곳, 금사리〉



28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에서 만난 관람객



32

손기정 기증 청동 투구

연구와 전시

04

전시

국내 최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한 2년

08

전시

어느 독립운동가의 편지에 담긴 염원

10

전시

18세기 금사리金沙里 백자 이야기

12

전시

당신의 기록이 궁금합니다

15

전시

물에서 함께 누리는 섬의 문화유산

16

학술

15~16세기 동아시아와 조선 전기 미술

사람과 이야기

20

박물관 여행

오름 위에서 만난 바다, 국립제주박물관

24

툏아보기

돌고 돌아 한자리에, 어쩌면 만나지 못했을 귀한 인연

27

잠시멈춤

三國三色 삼국삼색

28

인터뷰

생각의 변화를 넘어 깨달음으로 향하다

32

K-뮤지엄

기증으로 빛낸 올림픽 정신

34

주요 소식

36

국립박물관 주요 전시 일정

38

박물관문화향연

가을의 색을 듬뿍 머금은 공연

39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중앙박물관

창간일 1970년 7월 1일

발행일 2024년 9월 1일

발행인 김재홍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용산동)

www.museum.go.kr

편집인 김원길

편집위원 강경남 곽흥인 류정한 이민수 이진민 이태희

이현주 전인지 허형욱 황은순 황지현

기획·편집 김미소 명성은 이태연

제호 최순우

디자인 큐라인

사진 박재홍

영상 IBC미디어

인쇄 ㈜태광피엔디

문의 02-2077-9575

ISSN 1226-038X

THE MUSEUM NEWS VOL. 637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해당 자료 소장자에게 있습니다. 외부 필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 국립중앙박물관

본 간행물은 FSC 인증을 받은 종이와 콩기를 잉크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바로가기

국내 최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한 2년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관 상설전 〈메소포타미아, 저 기록의 땅〉
2022.7.22.~2024.9.29.

약 2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3층 세계문화관에 자리했던
〈메소포타미아, 저 기록의 땅〉전시(이하 메소포타미아실)가
9월 29일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집트 문명과 함께
가장 오래된 문명을 대표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인류의 역사는 물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는 여러 가지 눈부신 문화유산을 남겼다.
전시실을 닫으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국내 최초 메소포타미아 상설전시가
남긴 성과와 의의를 돌아본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남긴 점토판과 인장을 중심으로 한 1부 '문화 혁신' 전시 장면

©ERCO GmbH, Photographer Jackie Chan

인류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큰 성취는 의심의 여지 없이 '문자를 통한 기록'이라는 행위의 창안이다. 학습용 곱셈표와 거래용 회계장 부부터 종교의식까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인류 최초의 문자인 쉐기문자를 사용하여 그들의 다양한 일상을 기록했다. 문자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지식을 체계화하고 이를 어떻게 전할지를 고민한 결과이다. 이후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자가 나타나고 기술의 발전으로 기록 수단에도 눈부신 변화가 생겼지만, 문자로 기록한다는 행위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남긴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시공간적으로 멀게만 느껴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만, 그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도 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원통형 인장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인장의 소지자는 자신이 섬기는 신과 글을 도안에 넣어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다. 좋아하는 스타의 모습이나 상징이 들어간 물건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오늘날 우리와도 닮은 부분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메소포타미아실'의 의미

인류 역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만 의외로 박물관 전시로 만나보기는 쉽지 않다. 이는 같은 고대 문명인

이집트 문명이 국내외에서 여러 번 선보인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세계문화관 메소포타미아실은 이처럼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쉽게 접하기 힘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다양한 면모를 상설전시를 통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누구나 쉽고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관람객의 더 쉬운 이해와 접근을 위해 메소포타미아실의 구성 역시 시간과 왕조에 따른 일반적인 전개에서 벗어나 있다. 방대한 지역과 시대를 포괄하는 문명인 탓에 전문 배경지식 없이는 내용을 따라가기 쉽지 않으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요 성취를 문자, 인장, 종교, 초상 미술 등의 키워드로 나누고 각각의 내용 속에서 전시품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1부 '문화 혁신', 2부 '예술과 정체성', 3부 '제국의 시대'로 묶어 관람객들이 큰 맥락을 잡으면서도 세부 내용을 명료하게 이해하게끔 했다. 1부에서는 점토판 문서와 신전 건축 부재 등에서 쉐기문자와 기록이라는 행위의 창안 과정을 보고, 2부에서는 인장과 초상 조각, 왕실 묘에서 출토된 장신구 등에서 메소포타미아인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야기 들으며, 3부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대표하는 신-앗슈르(신-아시리아) 제국(기원전 약 911~612년)과 신-바빌리(신-바빌로니아) 제국(기원전 약 626~539년)이 남긴 궁전 부조나 벽돌 건축 부재 등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예술을 만나는 구성이다.



〈사자 벽돌 패널〉은 신-바빌리 제국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예술 세계를 보여준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인물의 개성이 아닌 지위와 업적에 걸맞는 이상적인 속성을 조합해서 인물상을 만들었다

세계 문화를 만나는 가장 가까운 방법

관람객을 위한 내용 구성과 별개로 학술적인 면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가 있었다. 인명이나 지명을 기존에 통용되었던 서양식 표기에서 탈피하여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널리, 오래 사용되었던 공용어인 악카드어 원어에 가깝게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대표하는 두 제국인 ‘신-아시리아’와 ‘신-바빌로니아’ 역시 ‘신-앗슈르’와 ‘신-바빌리’로 표기하여 메소포타미아 문명 본래의 맥락을 더 잘 살리고자 했다.

세계문화관은 ‘다양한 문화, 확장된 시선’을 주제로 한다. 메소포타미아실을 비롯한 세계문화관의 여러 전시는 세계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했음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세계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더 넓은 시선을 갖게 해 준다. 향후에도 세계문화관에서 이루어질 여러 세계 문화와의 만남을 기대해 주길 바란다.

글. 노남희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학예연구사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남긴 예술과 기록

우리에게 새겨진 이야기들 관람객 인터뷰

메소포타미아는 척박한 땅에 자리 잡았지만, 한때 최고로 발전했던 큰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책에서만 본 이야기를 전시실에 와서 직접 보니까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저는 만물기를 좋아해서 인장을 새긴 점토판을 재미있게 봤어요. 영상도 같이 볼 수 있어서 인장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알게 돼서 좋았고요. 조각은 매우 어려운 고난도 작업인데 동물들의 모습이 아주 정교해서 더 놀라웠죠. 조각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는 점도 전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박물관에 와서 좋은 점 중 하나는 전시장의 정보패널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숏폼 콘텐츠, 웹툰 등을 자주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언어들도 짧아지고 자극적인 속어나 은어들을 익숙하게 사용해서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박물관에서 보는 정보들은 깊이 있는 단어와 높은 완성도의 문장들이어서 아이들과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 하는 시대 또는 작품에 따라 그날그날 감상을 달리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안도원(10세) · 김혜영(38세)

개인 또는 단체의 정체성을 원통형 인장에 새겼다는 점이 재미있었는데, 이 인장들을 보면서 메소포타미아시대의 예술과 문화까지도 엿볼 수 있었어요. 점토판에 새겨진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이야기는 요즘 우리의 일상과 매우 닮아 있어서 시간의 간극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보면서 ‘나는 어떤 인장을 새길까?’ 생각해 보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강진영(34세)

“문자를 만들고

계속해서 시대의 문명을 기록했다는 것이

비단 ‘남긴다’는 의미 이상으로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를 찾으려고 했던 ‘노력’이라는 점에서

애뜻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보면서 ‘나는 어떤 인장을 새길까?’ 생각해 보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SNS에서 검색하다가 전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바로 보러 왔어요. 국외박물관에서도 메소포타미아실은 못 봤었던데요. 정치외교와 함께 어문을 전공하고 있는데, 공부한 쉼기문자를 직접 보니까 새로웠어요.

전시품 중에서는 동물을 그려 넣은 인장이 기억에 납니다. 기원전에 만들어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물의 모양과 비슷했으니까요. 벽돌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사자가 그려진 〈사자 벽돌 패널〉 앞에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왜 벽돌에 사자를 그렸을지, 그림을 처음 그려서 붙였을지 아니면 벽돌이 완성된 후에 조각했을지, 제작 과정이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전시장에서 찍은 사진들은 24시간만 유효하게 게시할 수 있는 ‘SNS 스토리’에 올리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매력을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인 것 같아서요.

전서현 · 최성구(22세)

농치기엔 너무 아쉬운 전시예요. 그만큼 유명한 문명이니깐요. 하지만 그 긴 역사와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담아낼 수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어요. 전시실에서 본 영상 중에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인류의 존재 방식을 고민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전시실의 이 많은 기록을 보니 절로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개인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선조들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문자를 만들고 계속해서 시대의 문명을 기록했다는 것이 비단 ‘남긴다’는 의미 이상으로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를 찾으려고 했던 ‘노력’이라는 점에서 애뜻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관이 개관한 후로 가끔 와서 보고 있는데 같은 시대를 놓고 여러 문화유산과 역사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재밌고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또 세계 문명은 국외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관람할 수 있는 것을 보니 국립중앙박물관의 국제적인 위상도 피부로 와닿고요.

김아령(40세)

진행, 편집팀

어느 독립운동가의 편지에 담긴 염원

국립중앙박물관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심화전 <독립을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나석주>
2024.7.26.~10.9.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가 나석주(羅錫喈)(1892-1926) 의사^{義士}의 편지 7점이 국립중앙박물관 대한제국실에서 관람객에 첫 선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데니 태극기>(보물)도 광복절을 맞아 전시 중이다.



폭탄 투척 계획을 김구에게 알리는 편지
1925.7.28.
등록문화유산
신수 6284-7



데니 태극기
조선
가로 262cm, 세로 182.5cm
보물
신수 6266

식민지 수탈기관의 중심부에 투척한 폭탄

1926년 12월 28일 오후 2시경, 서울 한복판에 있는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이 있었다. 독립운동가 나석주였다. 나석주의 폭탄 투척은 일제 당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조선총독부는 철저히 보도 통제를 시행했다. 나석주의 의거로 민심이 동요하고 항일운동의 불씨가 타오를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나석주의 의거는 1927년 1월 13일에서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호외로 알려질 수 있었다.

의열남아 나석주

나석주는 황해도 재령군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18세인 1910년부터 독립운동에 나섰다. 이 무렵 황해도에서 교육 활동하던 김구와 맺은 인연은 나석주의 생애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나석주는 3·1운동 이후 황해도 일대에서 독립운동 자금 모금을 위한 의열투쟁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다가 1921년 상하이로 망명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에 소속되어 김구의 측근으로 활동하는 한편, 의열단

등에 가입하여 의열투쟁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그리고 1925년, 일제의 식민지 수탈 기관에 대한 폭탄 투척 의거를 결심하고 독자적으로 준비했다. 나석주의 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다가 이듬해 김창숙의 자금 지원으로 실행되었다.

서른네 살을 일평생으로 마치고 작정하고… 본국에 가서 몸값이나 하고 죽겠소

이번에 공개된 <나석주 의사 편지>(국가등록문화유산)는 김구에게 쓴 편지 2점, 의열단 동지인 이승춘(본명 이화익, 1900-1978)에게 쓴 편지 4점, 황해관(본명 황익수, 1887-?)에게 쓴 편지 1점 등으로 총 7점이다. <폭탄 투척 의거 계획을 김구에게 알리는 편지>(1925.7.28.)는 나석주가 서울에서의 폭탄 투척 의거를 결심한 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김구에게 알리고 비밀을 당부하는 한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있다. <폭탄 투척 대상을 정해 이승춘에게 알리는 편지>(1925.8.4.)에서 나석주는 폭과 대상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거사 계획을 알렸다. <의열투쟁의 필요성을 이승춘에게 알리는 편지>(1925.8.25.)

에서는 ‘중국에서 동분서주하다가 무심하게 죽기보다는 차라리 본국에 가서 몸값이나 하고 죽겠다’는 나석주의 결연한 각오가 드러난다. 이 외에도 그의 편지에는 폭탄과 권총을 구했다는 보고, 귀국 배편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 귀국 자금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열투쟁을 결심한 독립운동가의 고뇌와 노력이 여실히 담겨 있다.

독립을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나석주의 의거는 안타깝게도 폭탄 뇌관이 물에 젖고 너무 오래되어 불발에 그쳤다. 비록 폭탄은 불발되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 항거하는 뜻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 그의 뜻과 독립을 향한 열망은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이 기억되었다. 이번 전시가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목숨을 바친 한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글. 유새롬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사

18세기 금사리金沙里 백자 이야기

국립중앙박물관 심화전 <달항아리를 만든 곳, 금사리>
2024.6.25.~2025.6.22.

2021년 새롭게 단장한 분청사기·백자실에는 주기적으로 주제를 바꾸어 전시할 수 있는 진열장이 있다. ‘심화전’이라는 이름으로 상설전시의 흐름에서 미쳐 풀어내지 못했거나 좀 더 다루고 싶은 내용을 위해 마련된, 작지만 변화로운 공간이다. 지난 6월부터 전시되고 있는 <달항아리를 만든 곳, 금사리>는 18세기 유백색 백자 특히 달항아리의 산지로 알려진 경기도 광주 관요 금사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달항아리를 만든 곳, 금사리> 전시 장면



금사리 수습 백자·청화백자·요도구 파편



금사리에서 바라본 물길

©한정엽

1467년 무렵, 조선왕실은 궁궐에서 사용할 백자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광주에 관요官窯 곧 왕실 도자기 가마를 두었다. 광주는 가마에 불을 지필 땔감용 나무가 우거지고, 백토 등 원료나 완성품 도자기의 운송을 위한 남한강 물길이 닿는 곳이다.

1883년까지 광주 안에서도 가마는 약 10년마다 위치를 옮겨 작업하였다. 땔감이 떨어지면 나무가 무성한 곳으로 이전한 것이다. “홍상빈이 사옹원 관원이 전하는 도제조와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자기磁器가 해마다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금년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여 굽는 일을 이미 계품啓稟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광주廣州 시장樂場 안의 퇴촌면退村面 금사곡金獅谷으로 옮겨 가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고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승정원일기』 773책(탈초본 43책), 영조 10년 2월 2일] 기록에서 밝히듯 금사리는 1734년부터 1751년까지 운영되었다. 1752년부터는 가마가 분원리에 정착하였고 1884년 민영화되었다.

금사리는 유백색 곧 우윳빛의 백자 색과 달항아리를 만든 곳으로 유명하다.

1997년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의 공동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백자 파편을 통해 금사리의 작업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금사리에서는 달항아리의 입구, 몸체, 굽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특히 몸체 안쪽 면에는 이음새가 보여 주목된다. 달항아리의 몸체는 높이 40cm가 넘기 때문에 물레에서 한 번에 만들기가 어려워 위아래를 따로 만들어 이어 붙였음을 보여준다. 달항아리 굽 파편에는 모래가 묻어 있어, 가마에서 구울 때 불에 강한 모래를 깔고 그 위에서 구웠음을 알려준다.

가마터의 파편은 원형일 때는 보기 어려운 그릇의 깊은 안쪽 면이라든가 깨진 단면 등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전시에서는 파편과 더불어 전체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완형을 배치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다.

금사리에서는 달항아리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백자들도 만들었는데 제기가 대표적이다. 제사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얹는 그릇인 시접, 곡식을 담는 제기인 궤甋의 파편 등이 발견되었다. 투각으로 구멍을 낸 향로의 뚜껑과 몸체의 파편이 수

습되기도 하였는데, 제사 때 향로 몸체에 향을 넣고 뚜껑을 덮어 향이 구멍 밖으로 피워지며 혼을 부르도록 한 것이다. 굽이 높은 점시에 ‘제祭’자를 써서 제기로 만들기도 했는데, 18세기에 가문의 제사가 늘고 일상 생활기를 제기로 삼았던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안 바닥에 ‘수甞’ ‘복福’이 쓰인 그릇과, 18세기 문인의 취향을 반영한 대나무 무늬, 장식적인 철보 무늬 등이 그려진 유색과 발색이 좋은 청화백자의 파편도 발견되었다.

금사리는 1974년 팔당댐으로 인해 수몰되기 전까지 마을 앞을 흐르던 하천에서 사금이 많이 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가마를 운영한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달항아리라는 대표작을 남겼다. 현재 금사리 가마가 있던 자리에는 그 흔적은 사라지고 비닐하우스와 풀이 무성한 모습이다. 하지만 당시 오가는 사람들과 배들로 분주했을, 금사리에서 바라본 남한강의 물길만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

글. 임진아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국립청주박물관

당신의 기록이 궁금합니다

국립청주박물관 특별전 <기록, Map of You>

2024.6.25.~11.3.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기록을 남긴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부터 공공의 기록물까지 기록의 범위는 방대하며 언어나 그림, 기호, 영상, 음성 등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다양하다. <기록, Map of You> 전시는 국립청주박물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옛사람들이 기록을 남긴 목적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하였다. 기록을 통해 과거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해 보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감성적인 전시이다.

1부 '기록의 힘', 세종 태실 석물과 태향아리 외



프로로그 '먼 옛날 사람들이 남긴 수수께끼' 전시 장면

기록하는 오늘이 당신의 역사

<기록, Map of You> 전시에 소개되는 문화유산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문자들로 가득 차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전시 관람은 과거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 속에서 현재의 나를 찾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프로로그 '먼 옛날 사람들이 남긴 수수께끼'에서는 구석기부터 삼국시대까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남긴 기호와 무늬가 남아있는 석기, 청동기, 토기를 소개한다. 옛사람들이 왜 이런 기호와 무늬를 남겼는지 현재의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학설이 존재한다. 과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남긴 흔적은 우리의 상상을 자극한다.

1부 '기록의 힘'에서는 기록물이 가지는 힘에 대해 알아본다. 과거의 기록물은 통치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 통치자가 남긴 기록과 백성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과거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과거를 해석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국왕의 권위와 관련하여 세종 태실의 석물과 태향아리, 태지석, 태실 수리 과정을 담은 의궤 3종 등 세종 태실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한자리에 모았다.

2부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는 옛사람들이 무언가 간절히 원

하는 바를 기록으로 남긴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다. 현세와 내세에 서의 복을 기원하며 글자를 새겨 넣은 고려시대 쇄복과 향완, 죽은 이를 추모하는 만장과 청화백자 묘지, 명기 등을 선보인다. 특히,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위해 무덤에 함께 넣은 <단산오옥 丹山烏玉>이 새겨진 먹(보물)과 <제숙공처가 새겨진 젓가락>은 사랑하는 아들을 추모하고 아들이 내세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전시품이다.^{도1}

3부 '기억하고 전하고픈 마음'에서는 기념, 전승, 공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작성된 기록물을 소개한다. 문자를 알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계층이 확대되면서 삶의 기록 또한 점차 다양해졌다. 조선시대 국왕 효종과 왕비 인선왕후가 딸에게 보낸 편지 <숙명공주에게 보낸 한글편지>(보물)^{도2}는 딸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부모의 마음과 조선 왕실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청주 상신리 마을에 사는 진주 강씨 집안의 음식 레시피를 기록한 <반찬하는 이야기, 반찬등숙>과 기로회라는 특별한 행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원로들의 잔치, 이원기회계첩>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에필로그 '우리가 남길 수수께끼'에서는 옛사람들이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 사용한 연적, 벼루 등의 물품들과 국립청주박물관이 남긴 기록들을 볼 수 있다. 이를 관람하며 우리는 과연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지, 어떻게 남길 것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도1.
단산오옥이 새겨진 먹
고려
14.2cm
보물
청주 4648

제숙공처가 새겨진 젓가락
고려
27.5cm
청주 4650



도2.
숙명공주에게 보낸 한글편지
조선
43.0x26.5cm
보물
청주 8902

물에서 함께 누리는 섬의 문화유산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공동기획전 <바다 위의 성, 군산군도>

2024.9.10.~11.24.



'사랑의 기록'을 체험하는 관람객 모습

기록으로 찾아가는 나의 인생 여정

이번 전시는 기획 단계부터 관람객 소통에 중점을 두고 1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의 관람객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내용을 반영하여 전시실 내에서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며 서로 소통하고, 나를 돌아보는 다감각 체험 공간 8곳을 마련하였다.

관람객들은 전시실 입구에서 오늘의 나를 기록할 수 있는 'Map of You' 노트를 들고 관람을 시작한다. '인생=미스터리'에서는 구석기시대 <눈금이 새겨진 돌>에 새긴 눈금의 미스터리를 생각해 보고, '당신의 시작'에서는 나의 첫 번째 기록을 떠올려 본다. '당신의 존재'에서는 호패로 나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마지막 기록'에서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해 본다. '당신의 열정'에서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나만의 인생 성공 레시피를 공개하고, '사랑의 기록'에서는 소중한 이에게 나의 다정함을 전해 본다. 마지막 '오늘을 넘어, 당신의 내일'에서는 나의 미래가 되는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해 본다. 이 8개 공간에 참여하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인생 여정이 기록될 것이다. 또한 전시를 보고 기록을 남기는 순간, 이 전시는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옛사람이 남긴 기록은 곧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전시 관람이 옛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과 가치를 돌아보고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길 바란다.

글. 김선미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전시 감상 포인트

첫째, 한자로 가득한 과거의 기록은 우리가 해석하기 너무 어렵다.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1, 2, 3부마다 전시품 중 하나를 선정하여 현대적으로 각색한 부별 영상을 제작하였다.

둘째, 관람객이 전시품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다채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전시실의 모든 설명은 쉬운 해설을 지향하였다.

셋째,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 관람객을 위해 『지적이고 호기심 많은 당신을 위한 심오한 해설서』를 제작하여 비치하였다.

국립익산박물관은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특별전 <바다 위의 성, 군산군도>를 개최하였다. '군산군도'는 현재 '고군산군도'로 불리는 군산 앞바다에 존재하는 섬을 통칭하는 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군산'이란 지명은 본래 섬을 가리키던 말이었다. 바다 위에 무리 지어 있는 모습이 마치 산과 같아 보여 '군산도'라고 불리었고, 명칭은 오랜 시간 바다의 물결을 타고 육지로 넘어왔다.

첫 특별전이 열리는 동안, 미륵사지와 백제 불교사원을 브랜드로 하는 국립익산박물관에서 '군산'을 주제로 삼은 것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여러 측면에서 답할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하게는 국립익산박물관이 군산지역의 국가귀속문화유산의 보관·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박물관은 <바다 위의 성, 군산군도> 이전에도 제3전시실(역사문화실)에서 군산 선제리, 축산리를 비롯한 고군산군도 관련 문화유산을 상설 전시해 왔다. 다만, 규모와 구성이 다소 소략한 까닭에 특별전을 열어 더욱 풍성하게 조명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소망에 더하여 또 다른 바람도 갖게 되었다. 군산을 주제로 하는 만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이번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의 공동기획전을 추진했다.

공동기획전은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진행된 특별전의 구성과 전시품을 바탕으로 9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시는 '바다 위의 산', '바다 위의 성', '바다 위의 율타리' 3개의 주제로 구성했다. 1부 '바다 위의 산'은 선사시대 섬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소개하며, 2부 '바다 위의 성'은 군산군도가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고려시대를 조명한다. 마지막 3부 '바다 위의 율타리'는 조선시대 바다를 굳건히 지켜온 군사 역할부터 오늘날 섬의 모습까지를 다루는데, 섬사람들의 전통 고기잡이 방식인 어전을 비롯해 일상 생활품들이 새롭게 소개된다.

더불어 전시실에서 영상 자료를 상영하고, 문화취약계층을 위해 제작한 촉각체험물도 제공하는 등 지역민들에게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특히, 영상 자료는 올해 고군

산군도 섬 주민들이 주관하여 진행한 국가유산사업에서도 활용된 바 있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에게는 2세트의 카드를 그림과 스티커로 완성한 후 같은 카드를 뒤집어 찾는 메모리 게임을 제공하는 등 전시품 및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진행하는 <국보순회전: 금관총 금관>(9.13~12.1)이 장수역사전시관에서 개최된다. 비슷한 시기 군산과 장수 2개 지역에서 전시가 열리는 만큼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전시와 연계한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및 이벤트 등으로 함께하고자 한다. 9월과 더불어 시작하는 두 전시, 공동기획전과 국보순회전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

더 알아보기
『박물관신문』 제629호 2024년 1월호
국립익산박물관 특별전 <바다 위의 성, 군산군도>

글. 원승현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사



15~16세기 동아시아와 조선 전기 미술

2024년 국외전문가 초청 학술 콜로키움

국립중앙박물관은 2025년 6월 ‘조선 전기 미술’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전을 1년 정도 앞두고 지난 8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박물관에서 5명, 일본 내 조선 전기 관련 작품 소장 기관 연구자 8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15~16세기 동아시아와 조선 전기 미술’을 두고 펼쳐진 활발한 논의의 현장을 지면에 옮긴다.



한자리에 모인 한국과 일본의 조선 전기 미술 연구자들



학술 콜로키움 종합토론 모습

이번 학술 콜로키움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의 국외전문가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미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2025년 특별전과 연계하여 조선 전기 미술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 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조선 전기 미술품을 새롭게 발굴, 소개하며 이를 15~16세기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기획되었다. 콜로키움은 총 3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일 차는 1부 서화, 2부 공예, 2일 차에는 3부 불교미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서화 : 궁중 회화와 산수화

1부 서화에서는 오다연(국립전주박물관)이 ‘조선 전기 궁중 회화의 다원성 연구’ 발표에서 고려의 전통을 계승하고 중국의 여러 요소를 선택해 적용한 조선 전기 회화에 주목하였다. 또한 궁중 장식화의 제작 과정과 그 기능을 공간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미야타 다이키(宮田太樹, 후쿠오카시미술관)는 ‘조선 전기 산수화의 양식 변천—〈산수행려도〉(후쿠오카시미술관 소장품)의 자리매김에 대해서—’에서 조선 전기 산수화에서 자주 보이는 ‘단선점준(短線點皴)’의 사용을 분석하고, 〈산수행려도〉의 근경 중시 경향에 주목하였다. 조선 전기 산수화의 특징으로 곽희(郭熙) 그림의 구도와 모티프를 계승하면서도 근경을 중시한 북송 후기 이후 이과파 작품의 요소를 도입한 점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하타 야스노리(畑靖紀, 규슈국립박물관)는 ‘조선 전기에서의 산수화 전개—〈소상팔경도〉(규슈국립박물관 소장품 및 CMA 소장품)를 중심으로—’에서 안휘준(서울대 명예교수)과 이타쿠라 마사아키(板倉聖哲,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 교수)가 주장한 연대 편년을 정리하고 두 학자의 연구를 절충하여 〈소상팔경도〉의 제작 편년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아울러 조선 전기 회화의 대표 주제였던 〈소상팔경도〉의 제작 편년을 도상 구성과 표현 양식으로 해석하는 시도를 하였다.

공예 : 백자, 고려 다완 그리고 범종

2부 공예 분야는 도자 공예와 금속 공예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하였다. 먼저 도자 공예는 미카사 게이코(三笠景子, 도쿄국립박물관)의 ‘조선 전기 도자기—일본 시점으로 바라본 평가와 과제—’ 발표로 시작되었다. 일본의 차 문화가 ‘억제된 아름다움’을 뜻하는 ‘와비(侘び)’와 ‘사비(寂び)’의 개념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일본 학계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해체되어 간다고 소개하였으며 언제부터 차 문화와 결합되었는지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권소현(국립익산박물관)은 ‘조선 전기 백자 관련 쟁점—한국 연구를 중심으로—’에서 백자의 탄생 및 청화백자의 사용과 제작, 그리고 관요 운영 및 경기도 광주 백자 가마터를 설명하며 경기도 광주 분원 백자와 지방 백자의 상관관계와 차이점 등 조선 전기 백자와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후리야 데쓰오(降矢哲男, 교토국립박물관)는 ‘차 문화로 본 고려 다완’을 주제로 일본에서 고려 다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아울러 일본에서 이루어진 차회(茶會)의 역사를 설명하고 여기에서 사용된 고려 다완의 생산 가마와 제작 연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서 금속 공예에서 신명희(국립경주박물관)는 ‘조선 전기 불교 금속 공예—범종의 변화와 계승—’을 다루었다. 발표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조선 전기 제작 범종 20점의 현황을 정리하고 입상연판문대(중 어깨 부분의 장식)의 생략, 쌍룡의 용뉴(중 꼭대기 부분의 장식) 등장 등과 같은 범종의 양식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조선 전기의 범종은 중국의 양식을 수용하면서도 통일신라 이후의 전통적 요소가 주도적으로 작용하였고 나름의 독창성을 갖추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학술 콜로키움 발표 모습

불교미술 : 한·중·일 불화와 불상

3부 불교미술에서는 고지 야스히토(郷司泰仁, 나카노시마 고세쓰 미술관)가 『범화경』으로 이어진 중국·조선·일본—정면을 바라보는 석가제존집회도 변상도가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운류인[雲龍院] 본과 교우쇼요쿠[杏雨書屋](남송판) 본에서 볼 수 있는 ‘임안^{臨安}’에서 제작된 정면향 석가설법도가 조선에서는 14세기 이후에 확인되며, 일본에서는 가마쿠라시대(13세기 중반)에 들어와 신앙의 대상이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세이라이사[西來寺] 본(조선 1459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면향 변상도는 원·명대의 영향을 받아 조선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유경희(국립중앙박물관)는 ‘16세기 왕실발원 불화와 화원 이자실’에서 16세기 왕실에서 발원한 불화를 정리하고, 특히 이자실^{李自實}과 이상좌^{李上佐}를 동일 인물로 보고 16세기 왕실 발원 불화의 제작자를 이자실을 중심으로 한 화원 집단이 당시 화풍을 주도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모리자네 구미코(森實久美子, 규슈국립박물관)는 ‘문정왕후 발원 불화에 사용된 비단에 대하여’에서 문정왕후가 발원한 불화의 비단 직조 방법에 착안하여 발표하였다. 기존 불화 연구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재료 분석을 다루고 있어 향후 서

화 등 관련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타자와 나쓰키(北澤菜月, 나라국립박물관)는 ‘동아시아에서의 보타락관음상—14~15세기를 중심으로 한 사례 소개 및 검토—’에서 동아시아의 수월관음 도상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관음 도상의 상호 교류와 한·중·일에서의 독자적인 전개를 설명하였다. 오사와 신(大澤信, 규슈국립박물관)은 ‘일본 소재 한반도 유래 조각(도래불)을 둘러싼 제문제’를 발표하여 양식적으로 독특하다는 이유로 이른바 도래불과 같은 작품이 한국 미술사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였으며, 조일^{朝日} 교류의 거점인 쓰시마의 동·서해안에 각각 일본불과 한반도 도래불이 안치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영희(국립중앙박물관)는 ‘조선 전기 암벽 봉안 불상—국립부여박물관 소장 서산 상왕산 출토 금동불상군을 중심으로—’에서 소형 금동불·보살상 6구를 금강산 신앙과 결부 지어 보았으며 특히 아미타-관음-지장으로 이어지는 삼존상 구성을 추론하였다. 아울러 금강산에서 시작된 암벽 봉안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었으며 그 사례 중 하나로 상왕산을 지적하였다.

2025년 특별전 ‘조선 전기 미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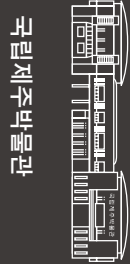
기대하며

1일 차와 2일 차 모두 발표 후에는 연구자들 간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1일 차의 서화와 공예 분야에서는 좌장으로 이수미, 토론자로 황지현, 김현정, 이해경, 이원진(이상 국립중앙박물관), 2일 차 불교미술에서는 좌장으로 김혜원, 토론자로 허형욱, 신소연, 윤예지(이상 국립중앙박물관)가 참여하여 발표에서 시간상 다룰 수 없었던 작품들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뜨거운 논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소속박물관 관련 전공자들도 많이 참석하여 한일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학술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조선 전기 미술에 관해 한국과 일본 학계의 관심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즉 한국에서는 조선 전기 미술의 형성과 특징에 주로 주목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조선 전기 미술 중에서도 일본에 전해진 작품을 중심으로 일본 문화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조선 전기 미술을 비롯한 양국의 연구 현황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연구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콜로키움 참가자들은 ‘15~16세기’라고 하는 시간적인 범위, 즉 조선 전기를 중심으로 학술적인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이며 구체적으로 서로의 연구 현황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가능하였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각자 자신이 속한 나라와 지역에 한정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연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어 주저되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이러한 한일 양국의 연구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시기에는 영상을 활용하여 다소 딱딱한 분위기의 학술대회가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이번 콜로키움은 현장감 있는 학술대회였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한 콜로키움에서 다루었던 조선 전기 미술 관련 전시품을 2025년 특별전시에서 볼 수 있다면 더 뜨거운 2라운드 토론이 전시장 안에서 열릴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글. 김지호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5



오름 위에서
만난 바다

이름 모를 들꽃의 향기를 맡고, 보드라운 흙의 촉감을 느끼며 숲길을 산책하고, 바다와 오름의 생명력을 느껴보는 시간. 순수한 제주의 자연을 만끽하는 것만으로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잊지 못할 순간과 마주할 수 있다. 조금씩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갈수록 더 그리워지는 제주로 가을을 미루지 마세요.

바다

1
관치기 해변

🚗 자동차 40분 30km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라이프스튜디오

사려니숲길

2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라이프스튜디오

🚗 자동차 50분 34km

장한철 표해록
조선 1771년
24.4×14.5cm
장지영 기증
제주기 1303



고산리식 토기
진석기
높이 25.6cm
제주 17516

🚗 자동차 50분 32km

4
국립제주박물관

네모진 물건을 든 동자
1923년경
너비 26.8cm
장광훈 기증
제주기 1165



어름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황영상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박은경

웅암과 바다가 만난 순간의 기적 관치기 해변

제주 올레길 1코스의 마지막이자 2코스가 시작되는 곳. 꿈결처럼 아련하면서도 손에 잡힐 듯 성큼 다가오는 성산일출봉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 관치기 해변이 있다. 제주어로 너럭바위가 넓다는 뜻을 가진 이 해변은 드넓게 펼쳐진 암반들의 모습이 광야와 같다고 해서 ‘관치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모든 것을 삼킬 듯 펄펄 끓던 웅암이 차가운 바다와 만났던 순간의 기적. 빠르게 굳어버린 웅암은 독특한 형태의 지질로 남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을 이룬다. 특히 바다의 민낯이 드러나는 썰물 때는 바닷물에 숨겨져 있던 비경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오랜 시간 동안 현무암의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진 관치기 해변의 모래는 검은색을 띠고 있어 더욱 거칠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웅암 지질과 초록을 담은 이끼가 어우러진 관치기 해변의 경이로운 풍경은 수많은 사진작가가 제주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다. 바다에 비친 하늘과 구름을 담아내는 반영 사진을 찍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다. 넓게 펼쳐진 모

래사장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을 그림처럼 두르고 있는 이곳이 가장 제주다운 풍경이 아닐까.

관치기 해변에서 시작해 하도 해변까지 이르는 길은 해맞이 해안도로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해가 뜨는 아침도 아름답지만, 붉은 노을이 번지는 일몰 풍경도 벅찬 감동을 준다.

제주의 비밀정원 사려니숲길

제주에는 저마다 특색을 가진 오름이 370여 개나 존재한다. 오름의 시작은 마그마에서 비롯되었다.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생긴 엄청난 압력으로 분출기는 여러 개의 줄기로 갈라진다. 이렇게 갈라진 마그마가 굳어지고 화산재가 쌓이며 생겨난 작은 화산들을 기생화산이라고 하는데, 이를 제주에서는 ‘오름’이라고 부른다.

저마다 생김새와 높이가 다른 제주의 오름 중에서 물차오름과 사려니오름을 바라보며 초록빛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사려니숲길. 비자림로를 시작으로 사려니오름까지 이어지는 숲길로, ‘신성한 숲’이라는 뜻처럼 제주의 본질적

인 자연 요소를 그대로 품고 있다. 전체 구간은 15km이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구간만 걸어도 오롯이 숲의 청정한 기운을 담아 갈 수 있다. 내딛는 걸음마다 조금씩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다.

사려니숲길에는 삼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서식하고 있어 제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서어나무, 졸참나무, 때죽나무, 편백나무 등이 자라고 있기에 더불어 야생 동물들도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오소리과 제주 족제비, 팔색조와 쇠살모사에게 제 품을 내어준 사려니숲의 넉넉한 서정이 느껴지는 산책길이다.

신비로운 제주의 자연을 이색적으로 체험하고 싶다면 웰니스Wellness 관광지로 떠오른 파파빌레도 빼놓을 수 없다. 파파빌레에서는 제주의 자연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산림치유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명상과 요가 숲 치유, 맨발 걷기 등의 자연 체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깨끗한 자연 속에서 그저 마음의 ‘내려놓음’만으로 자연스럽게 많은 것이 치유되는 시간.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제주에서의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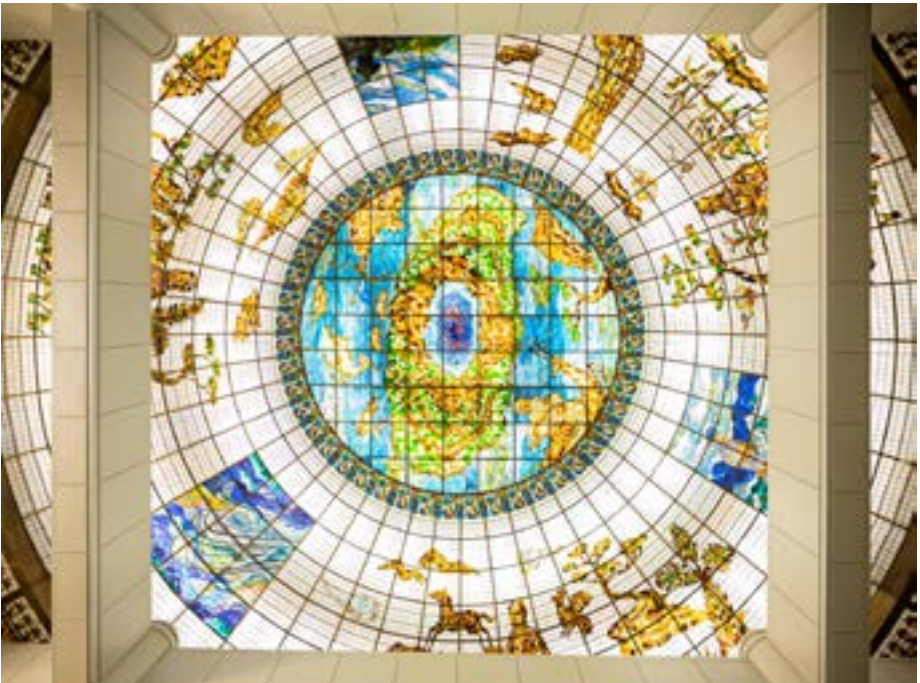
사려니숲길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라이브스튜디오



새별오름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라이브스튜디오



스테인드글라스로 꾸며진 국립제주박물관 상설전시관 입구 중앙홀의 천장

📍 **광치기 해변**

주소: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24-33
입장료: 무료

📍 **사려니숲길**

주소: 제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1
문의: 064-900-8800
운영시간: 09:00~17:00
(연중무휴)
입장료: 무료

📍 **새별오름**

주소: 제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 59-8
문의: 064-728-2753
운영시간: 00:00~24:00(연중무휴)
입장료: 무료

📍 **국립제주박물관**

주소: 제주 제주시 일주동로 17
문의: 064-720-8000
운영시간: 09:00~18:00
(월요일 휴무)
입장료: 무료

국립제주박물관 전시실



가을은 오름을 타고

새별오름

제주의 가을은 오름을 타고 온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지나고 난 자리엔 어느새 선선한 가을바람이 찾아들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 전역에는 경사가 완만하고 봉긋한 오름들이 많다. 그중에서 제주 서부를 대표하는 새별오름으로 향한다.

초저녁 뜨는 셋별 같다고 해서 붙여진 새별오름. 청초하고도 외로운 자태가 그대로 투영된 이름이다. 가을이면 무수한 역사가 자라나는 새별오름으로 오르는 길. 바람결에 몸을 맡긴 역세들이 끝도 없이 흔들리며 완연한 가을을 알리는 듯하다.

새별오름으로 오르는 길은 두 곳으로 갈라지지만, 모두 원점회귀 코스이므로 어느 곳을 선택해도 정상으로 향할 수 있다. 20분 정도 오르면 제주의 서쪽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멀리 있던 비양도도 손에 닿을 듯 그림 같이 펼쳐진 풍경 속으로 들어온다.

우뚝 솟은 새별오름을 바라볼 수 있는 카

페도 있다. 그린리조트호텔이라는 옛 이름을 그대로 두고 새단장한 ‘카페 새빌’이다. 5만 평에 이르는 목장과 리조트를 개조해 재탄생한 카페로 유럽 어딘가에 있을 법한 외딴 성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카페의 통유리로 바라보는 새별오름과 애월 지역의 풍경은 가을날과 더없이 잘 어우러져 운치를 더한다.

섬의 기억 저장소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국립제주박물관은 2001년에 개관하였다. 제주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유산과 역사적 문물들을 보여주는 전시품이 많아 조금 더 깊이 있게 제주를 알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공간이다.

오름과 돌담을 반영한 설계 구조, 초가지붕을 본뜨고 화산송이 벽돌로 마감한 외관에서부터 제주만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다. 박물관 내부로 들어서면 중앙홀 천장에 있는 웅

장한 스테인드글라스 조형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삼성 신화(고·양·부 세 성씨의 시조 신화)와 백록담, 삼다도 등 제주도의 탄생 설화를 재해석한 거대한 예술 작품이 하늘 위에 펼쳐져 있다.

구석기시대부터 탐라국이 탄생하기 전까지의 문화를 둘러볼 수 있는 선사실과 제주의 문화가 완성되고 꽃을 피웠던 탐라시대를 만나는 탐라실에 이어 고려실, 조선실 등 제주도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시하고 있다. 특히 섬 전체가 동일한 문화 양식을 공유하며 활발한 해상 활동을 전개하던 탐라국과 그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소박하지만 강건한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잇는 문화교류의 주요 거점으로 독특한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 온 제주. 그 가치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는 국립제주박물관. 이곳에서 아름다운 자연에 깃든 제주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해 본다.

정리. 편집팀



흑칠 '중화' 글자가 있는 금
중국 명비 1641년
길이 120.0cm, 너비 19.0cm
중국 국가박물관

나전 대모 칠 국화·닝쿨무늬 합
고려 12세기
높이 3.0cm, 너비 9.8×7.0cm
국립중앙박물관

돌고 돌아 한자리에, 어쩌면 만나지 못했을 귀한 인연

한·일·중 국립박물관 공동특별전 <三國三色-동아시아의 칠기>
2024.7.10.~9.22.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한·일·중 공동특별전 <三國三色-동아시아의 칠기>가 열리고 있다. 2014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중국 국가박물관이 삼국의 우호와 문화유산의 이해를 위해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공동특별전을 개최하는데, 이번 전시의 주제는 칠기이다. 동아시아 공통의 천연 도료인 옷칠을 사용해 14~19세기 한국, 일본, 중국에서 제작한 대표 칠공예품 46건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 이 가운데 세상을 돌고 돌아 우리 눈앞에 놓인 삼국 칠기 세 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아
픈
세
월
을
견
디
고
돌
아
와
뵈
어
내
는
영
롱
한
빛

한
국,
나
전
대
모
칠
국
화
·
닝
쿨
무
늬
합

고려시대에 만든 '나전 대모 칠 국화·닝쿨무늬 합'은 이번 전시에서 한국 칠기 전시 구역 맨 앞자리에 놓였다. 작품성만큼이나 특별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합은 2020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일본 개인 소장가에게 구입해 돌아온 문화유산이다. 고려시대 칠기 중 완전한 형태로 남겨진 나전 대모 칠 합은 전 세계에 딱 세 점이 남아있는데 그중 한 점이다.

나전 합이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고려 나전칠기 상당수가 일본에 있는데 대부분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거나 박물관 또는 사찰의 소장품이라 환수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나전 합은 일본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기에 유일하게 매입의 가능성이 있었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서는 1년간량 소장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매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 협상이 조금만 더 늦어졌다면 일본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을 수도 있어 영영 돌아오지 못할 뻔 했다고 한다.

현전하는 고려 나전칠기는 전 세계에 20여 점에 불과해 문화유산으로서 의미를 더한다. 본체의 재료가 나무인 만큼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자연 손상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더더욱 귀하고 값진 보물인 이 작은 나전 합은 오늘날 전시실에서 그 빛을 반짝반짝 발하고 있다.

중
국,
'중화',
를
새
긴
칠
현
금

마
침
내
확
인
한
문
헌
속
노
왕
주
상
방
의
기
품

칠현금七絃琴은 명나라 노왕潞王 주상방朱常潁이 숭정崇禎 14년(1641)에 만든 악기이다. 노나라는 명나라 황제에게 분봉分封 받아 통치한 곳으로 오늘날의 허난성 웨이후이[衛輝] 지역이다. 이 칠현금은 1955년 베이징시 문화국文化局에서 국가박물관으로 옮겨왔다.

칠현금 뒷면 바닥에는 '용지龍池'라고 부르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근처에 금으로 채운 '중화中和' 두 글자가 새겨져 있고 내부에는 붓으로 적은 '대명 숭정 신사년 음력 4월에 노국에서 만든 제 234호(大明崇禎辛巳孟夏潞國製貳百三拾肆號)'라는 열일곱 글자가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청나라 왕사진王士禛의 『지북우담池北偶談』 19권에 "명나라 변왕藩王인 노왕경일주인敬一主人은 고상한 기품을 가졌으며 3천 대의 칠현금을 만들었다. 장안長安시 시장에 한 대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예서체隸書體로 '중화'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기록으로 노왕 주상방이 매우 많은 칠현금을 만들었으며, '중화'라고 불리던 칠현금도 여러 대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칠현금도 노나라에서 만들어진 중화금이라는 것을 마침내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마키에 칠 소나무·싸리나무무늬 선반
바닷속 침몰의 시간을 이겨낸 내력의 비밀



마키에 칠 소나무·싸리나무무늬 선반은 두루마리와 서적 등을 올려놓는 장식용 가구로 먼저 금가루를 바탕 전체에 골고루 뿌리는 나시지[梨子地] 기법으로 장식하고, 도기다시 마키에[研出蒔繪] 기법으로 흐르는 물결을 표현했다. 또한 다카마키에[高蒔繪] 기법으로 비탈길, 바위, 어린 소나무, 싸리나무 등을 도드라지게 표현해 물가 경치를 묘사했다. 에도시대 중기에 지위가 높은 무사 가문에서 선호한 가구의 예술적 특징이 잘 반영된 선반이다.

이 선반은 메이지시대 6년인 1873년 빈 만국박람회에 출품되었던 작품이다. 그런데 전시회 종료 후 작품 수송에 이용된 프랑스 선박 닐Le Nil 호가 오늘날 시즈오카현 이즈반도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 침몰했다. 이 작품을 포함해 닐 호에 실렸던 모든 물품이 1년 넘게 바닷속에 있었고, 이듬해부터 약 2년에 걸쳐 겨우 인양되었다. 그럼에도 견고하게 작품을 보호해 주는 옷칠과 잘 변형되지 않는 금을 주재료로 한 덕분에 상태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마키에 칠 소나무·싸리나무무늬 선반
일본 에도시대
높이 68.0cm, 너비 80.1×38.7cm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글. 오세은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학예연구사



三國三色 삼국삼색

Three Colors in Three Countries

자개의 영롱한 빛을 뽐내는 한국 나전칠기.
금빛으로 물든 일본 마키에, 강렬한 붉은색의 중국 조칠기.
삼국삼색이 만나 아름답고도 신비한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QR코드에 접속하면 한·일·중 국립박물관 공동특별전 〈三國三色-동아시아의 칠기〉 전시장에서 상영 중인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를 넘어 깨달음으로 향하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관객객 인터뷰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태연

Q 20대 관람객이 ‘아기 요람’을 집중해서 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요. 이유가 있나요?

A 전시장 입구에 전시된 ‘아기 요람’에서 눈을 땔 수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봐왔던 요람과 달리 얼굴만 내놓을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요람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북미 원주민은 갓난아기 때부터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을 느끼기 위해 요람을 말에 매달아 두었다고 해요. 아기가 눈, 코, 입으로 자연의 기운을 마주하고 주변 세계를 관찰하도록요. 이런 생활양식은 인간, 자연, 조상 등 모든 것이 원으로 연결됐다는 북미 원주민들의 가치관과 연결되는데요. 전시장 역시 ‘원형 세계관’에 맞게끔 동그랗게 구성돼 전시에 완벽히 몰입할 수 있었어요. 전시장 곳곳에 새겨진 지혜의 말도 좋았고요!

Q 북미 원주민이 남긴 지혜의 말, 삶의 태도에서 배우고 싶은 점이 있었나요?

A 우선, ‘문명인들은 마음에 안 드는 식물을 잡초라 부른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풀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목적을 갖고 나왔다. 쓸모없는 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체로키족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 모두 각자의 역할과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었거든요. 또한, 북미 원주민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들소를 사냥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들소에 고마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들소를 숭배했다고 해요. 자연을 무분별하게 소비하려는 현대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Q 유독 공예품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어요.

A 호피족의 ‘카치나^{Katsina}’가 귀엽게 생겨서 눈길이 갔어요. 비를 내리게 해주는 카치나, 옥수수 풍년을 기원하는 카치나 등 다양한 카치나의 모습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웠는데요. 북미 원주민들은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했기에 만물에는 ‘영’이 깃들

지난 6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이 열리고 있다. 전시는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는 북미 원주민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조명하며 남녀노소 관람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무엇이 그들의 발걸음을 이끈 것일까? 특별전을 감상하고 나온 2030 관람객들에게 북미 원주민의 매력을 물었다.

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연의 정령이나 수호신을 어릴 때부터 접하게 하려고 인형인 카치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인형이 가진 개성이 독특해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Q 북미 원주민 출신 현대 예술가의 작품들은 어떻게 봤나요?

A 정치적인 주제를 다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싸워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슈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번 전시를 계기로 북미 원주민의 역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도 많지만, 미국 사회와 북미 원주민의 갈등과 그로 인해 촉발된 문화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됐어요.

Q 끝까지 몰입해서 관람한 만큼,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궁금합니다.

A 북미 원주민의 ‘원형 세계관’이 큰 울림을 주었어요.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존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모두 연결됐다는 것을 떠올렸어요. 책임감이 느껴지는 동시에 선한 영향력의 힘에 대해서도 생각했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깨울 수 있었던 뜻깊은 전시였습니다.



“위로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박소연 · 홍지연

Q 한국의 30대가 알고 있던 ‘인디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A ‘북미 원주민은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어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각종 매체에서 보아왔던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한편으론,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먼 시대의 조상, 독수리 깃털 장식 모자를 쓴 추장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Q 전시 관람 후 인식의 변화가 있었나요?

A 가장 놀라웠던 점은 매우 넓은 지역에 570여 개가 넘는 원주민 부족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부족마다 삶의 방식이나 태도, 주거 형태 등이 생생한 잠언으로 표현됐는데, 마치 그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 북미 원주민들은 추장의 모습도, 땅을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도 있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운 동시대인의 모습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잠언 덕분에 북미 원주민과 대화를 나눈 듯했다는 분들이 많습
니다. 특히 공감한 잠언이 있나요?

A ‘한 뼚 땅일지라도 소중한 것을 지키라. 홀로 서 있는 한 그루 나무 일지라도 그대가 믿는 것을 지키라. 먼 길을 가야 할지라도 그대가 해야 하는 것을 하라’라는 푸에블로족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우리 삶도 홀로 먼 길을 떠나는 여정과 같잖아요. 그 길이 너무 멀어서 감도 오지 않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잠언을 읽고 나서 혼자일지라도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과 위로를 얻었어요. 체로키족의 ‘문명인들은 마음에 안 드는 식물을 잡초라 부른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풀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목적을 갖고 나왔다. 쓸모없는 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잠언도 잊을 수 없어요. 저 역시 하나의 잡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았죠.

Q 자연을 대하는 태도 역시 가슴에 와닿았을 듯합니다.

A 전시 끝머리에서 만난 잠언이 있는데요. ‘대지를 잘 보살피라. 그것은 네 선조가 준 것이 아니라 네 후손이 빌려준 것이니. 우리는 선조로부터 대지를 물려받지 않는다. 다만 우리 후손에게서 빌려올 뿐이다’라는 문구를 보고 성찰했어요. 내 후손에게 빌린, 내가 밟고 있는 이 땅과 공기와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서 후손에게 돌려줘야겠다고요. 자연에 대한 북미 원주민의 이 같은 태도는 그들의 ‘원형 세계관’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Q 북미 원주민의 ‘원형 세계관’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요?

A 무한히 연결된 원 속에서 자신과 타인은 물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돌아보며 살아가고 싶어요.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타인에게 나쁜 말을 하는 등 나로 인해 무엇인가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 촉발될 수 있고, 그것이 곧 부메랑처럼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미 원주민의 ‘원형 세계관’을 가슴에 잘 담고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세계 원주민의 날'을 기념해서 특별히 꾸며진 포토존

북미 원주민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세계 원주민의 날' 기념 생일카페

국립중앙박물관은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의 홍보 마케팅 전략을 제안한 쿠도스(KUDOS, 고려대학교 실전마케팅학회)와 이색 이벤트를 마련했다.

세계 원주민의 날인 8월 9일에 맞춰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박물관 으뜸홀 카페에서 '북미 원주민 생일카페'를 진행한 것. 카페 내외부에 설치한 포토존, SNS 인증샷 이벤트, 북미 원주민 고사 이벤트, 포토 카드 증정 등 체험거리도 다채로웠다.



박나영·정재훈 부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박물관 특강을 듣거든요. 강의가 끝나길 기다리다가 우연히 생일카페를 발견했어요. 저희는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전시를 모르고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생각보다 모의고사가 어려워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모의고사를 보고 북미 원주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아요. 예전에는 북미 원주민을 추장 모자를 쓰는 사람들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원형 세계관'이나 '평화'에 관한 문제를 보고 인식이 달라졌어요. 무의식 속에서 북미 원주민을 어떤 원초적인 존재로 인식했는데, 생각보다 그들은 '나'처럼 사회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또한 박물관에서 '생일카페'라는 이색적인 이벤트를 운영하는 것이 신기했어요. 박물관 하면 으레 딱딱하고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체험 거리가 있어 재미있었습니다. 북미 원주민의 세계관이나 삶의 자세가 저희에게 많은 영감을 제공할 것 같아요. "북미 원주민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박예린

엄마랑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을 관람하고, 우연히 '북미 원주민 생일카페'를 발견했어요. 재미있어 보여서 북미 원주민 시험을 봤는데요.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았지만, 두 개만 틀려서 선물을 받았어요! 문제를 풀면서 8월 9일이 '세계 원주민의 날'이란 것을 알고 북미 원주민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북미 원주민 친구들아! 지금까지 잘 살아 있고 존재해 줘서 대단하고 고마워! 생일 축하해!"



고윤·최지윤·최희연·김이현

방학해서 친구들이랑 왔어요! 원주민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요. 땀점이라 다시 시험을 쳤어요.(웃음) 두 번째 시험에서 전부 100점 맞아서 선물도 받았어요. "북미 원주민 친구들아, 덕분에 선물 받았어. 고마워. 생일 축하해!"

진행, 편집팀

기증으로 빛낸 올림픽 정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에 들어서면 그리스 청동 투구 한 점과 마주하게 된다. 이 투구는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세계적 마라토너 손기정孫基禎(1912~2002) 선생이 기증한 것이다. 제33회 파리 올림픽을 맞아 손기정 선생의 보여준 고귀한 정신을 되새겨 본다.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선수로 참가한 한국 청년 손기정 선생은 1936년 8월 9일,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당당하게 내달려 2시간 29분 19초 2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때 남승룡南昇龍(1912~2001) 선수도 동메달을 따며 쾌거를 이루었다.

1936년 7월 27일, 그리스의 ‘이 브라디니’ Vradyni’ 신문사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 우승자에게 그리스 청동 투구를 선물하겠다고 내용을 보도했다. 2,600여 년 전 그리스에서 제작된 이 투구는 1875년 독일 고고학자 에른스트 쿠르티우스Ernst Curtius(1814~1896)가 이끄는 조사단이 발굴한 것으로, 이후 브라디니 신문사가 투구를 소장하고 있었다. 눈과 입만을 드러낸 채 머리 전체를 감싸는 ‘코린토스 양식’ 투구로, 목으로 이어지는 아랫부분이 잘록하게 들어가다가 나팔처럼 벌어져 있다. 투구 뒷면 안쪽에 있는 두 개의 동판에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의 우승자에게”라는 글귀를 새겨 마라톤 경기의 우승자가 곧 투구의 주인임을 밝혔다.

그런데 투구는 손기정 선수에게 곧바로 전달되지 않았다. ‘아마 추어 선수에게 메달 이외에 어떠한 선물이나 기념품도 공식적으로 줄 수 없다’는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 때문이다. 결국 투구는 독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관리하에 베를린에 남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를린의 샤를로텐부르크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재독 교포 노수용 씨의 노력으로 투구의 소재를 알게 된 손기정 선생은 투구를 되찾고자 했다. 국내 언론사,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그리스 측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한 끝에, 투구는 선생의 손에 돌아올 수 있었다. 1986년 베를린 올림픽 개최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손기정 선생에게 투구를 헌정한 것이다. 이듬해 정부는 50년 만에 돌아온 투구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보물’로 지정하였다.

선생은 “이 투구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것”이라며 1994년 국립중앙박물관에 투구를 기증하였다. 선생의 뜻을 받들어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투구를 기증관에서 상설 전시하였다. 투구는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기념전에 출품돼 진정한 스포츠 정신과 감동을 시민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2022년부터는 새롭게 단장한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에서 관람객을 만나고 있다.

기증관을 찾는 많은 관람객은 이 투구를 바라보며 선생을 기억한다. 망국의 설움을 딛고 힘차게 내달려 이룩한 올림픽 마라톤 우승의 순간, 개인이 아닌 모두의 영광을 위해 기증을 결심하여 투구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이 투구에 들어 있다. 기증관에 전시된 손기정 선생의 투구를 보며 선생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어 보길 바란다.

글. 이원진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학예연구사



김홍도 <서원아집도>·이인문 <강산무진도> 새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 조선 후기 걸작 30건 50점 전시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8월 5일부터 조선 후기의 대표 화가 김홍도(1745~1806 이후)와 이인문(1745~1824 이후)의 대표작과 고 손창근 선생(1929~2024)이 기증한 조선시대 회화 6점을 포함한 30건 50점을 서화실에서 새롭게 전시하고 있다.

단원 김홍도의 1778년 작품으로 지난 4월 25일 보물로 지정된 <서원아집도>(사진)는 빼어난 문인 15명이 복송 신송(재위 1067~1085)의 부마 왕선(1036~1104)이 주최한 모임 '서원아집'에서 한때를 즐기는 장면을 담았다. 조화로운 구도, 개성이 뚜렷한 인물, 변화가 넘치는 필선 등 김홍도의 뛰어난 기량이 잘 발휘된 것은 물론 복송의 화가 미불(1051~1107)이 쓴 「서원아집도기(西園雅集圖記)」의 내용을 충실하게 재현해 명작으로 평가받는다.

단원 김홍도와 더불어 18세기를 대표하는 화원 화가, 이인문의 대표작인 <강산무진도>도 만날 수 있다. <강산무진도>는 제목 그대로 끝없이 이어지는 대자연의 절경과 그 속에 펼쳐진 삶의 모습을 다룬 그림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이상향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산무진도>의 그림 부분 전폭이 모두 펼쳐져 특별한 감상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장승업(1843~1897)의 <말 씻기>와 심사정의 <풍랑 속의 뱃놀이> 등 고 손창근 선생이 기증한 6점의 기증 회화도 만날 수 있으며, 고양이가 그림으로 유명한 변상벽(1726 이전~1775)의 <고양이와 참새>, 이상범(1897~1972), 최우석(1899~1964) 등 6명이 그린 <꽃과 새>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조선 후기 화가들의 걸작 감상과 함께 기증자의 고결한 마음을 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학술대회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연계, 북미 원주민의 눈으로 본 미국의 역사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8월 20일 한국 미국사학회·이주사학회와 공동으로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원주민의 역사, 원주민이 만든 역사’라는 주제로 북미 원주민의 역사 연구와 최신 성과를 논의했다.

학술대회는 김혁중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학예연구사의 특별전 소개로 시작해 양홍석 동국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거쳐 1, 2부 발표로 진행됐다.

1부에는 ▲박물관은 원주민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박진빈, 경희대학교) ▲구원의 서사, 구원의 색* : 미국영화 속에 그려진 원주민의 수난사(김세주, 경인교육대학교) ▲원주민과 의료: 20세기 초 사우스다코타주 캔턴 인디언 정신병원(신지혜, 전남대학교) 등 사회·문화사적 고찰이 이뤄졌다. 2부는 ▲내부의 종속국: 미연방-원주민 조약의 변천과 주권 없는 점유권 법리의 형성(김성엽, 서울대학교) ▲또 다른 내전: 링컨과 인디언 그리고 정착민 식민주의(허현, 충남대학교) 등 법·제도 관점에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각 부의 발표에 이어 1부 오영인(평택대학교), 2부 김인선(부산대학교)의 사회로 발표자들이 열띤 종합토론을 펼쳤다.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 영상,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 본상 수상

투명 OLED의 활용 수준을 높인 사례로 인정 받아



올해 개편한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에 설치된 투명 OLED 영상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기증관 영상 제작에 사용된 투명 OLED 26대는 이미지 사이의 조화와 대비 효과를 극대화해 기증관의 주제별 전시 개념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기증 2실 도입부의 거대한 진열 선반 가운데 설치된 투명 OLED는 기증자의 대표 기증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진열 칸이자, 앞으로 펼쳐지는 중앙 통로 공간을 미리 들여다보는 창 역할을 한다. 전시 조명의 밝기 변화와 연동돼 몽환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는 기증 3실의 3중 시스템 진열장 속 투명 OLED 영상, 한옥의 창을 상징한 기증 4실 진열 공간의 투명 OLED 영상도 전시 몰입도를 높였다.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의 투명 OLED 영상은 상설전시관 2층에 위치하며 연중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한국의 신발, 발과 신> 관람객 10만 명 돌파

5월 14일 개막 이후 80일 만의 쾌거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한국의 신발, 발과 신>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5월 14일 개막 이후 80일 만의 성과이다.

10만 번째 관람객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정현철 씨로 “아이와 함께 대구박물관에 놀러 왔다가 특별한 전시의 10만 번째 관람객까지 되어 감격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이날 정현철 씨 가족에게 특별전 <한국의 신발, 발과 신> 전시 도록과 문화상품권을 증정했다.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이번 특별전은 발의 진화부터 현대 신발까지 우리나라 신발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최초의 전시로 9월 22일 까지 이어진다.

국립진주박물관,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업무협약 체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동 홍보 마케팅 추진



국립진주박물관은 지난 7월 24일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복합문화예술공간인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의 활발한 교류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로써 박물관과 예술회관은 각각의 공연 및 전시, 교육 및 문화행사 등의 소식을 상호 공유하며, 공동으로 홍보 마케팅을 펼치게 되었다.

2024 뽀즈 공모 선정작 판매

톡톡 튀는 창의적인 상품 돋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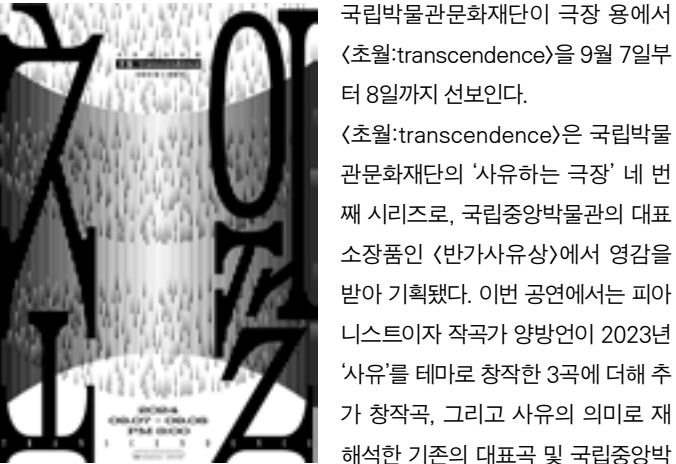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2024 뽀즈 공모전 선정작’을 국립박물관 상품관과 온라인 뮤지엄숍에서 판매하고 있다.

뽀즈 공모전은 뛰어나고 의미 있는 박물관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초부터 진행해 왔다. 작년 말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잔세트’도 2023 뽀즈 공모전의 선정작이다. 이번 2024 뽀즈 공모전에서도 ‘국립박물관 대표 소장품을 활용한 박물관 상품’들이 다수 출품됐으며, 그중에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43개 업체 136종이 선정됐다. 선정작은 민화 나무 쟁반, 한국의 미 리무버블 스티커 팩, 핀 배치, 책상 장패드, 조선시대의 멋 책갈피, 거북선 자석, 배지, 경주 금속배지, 매듭 키링, 반달이 카드 지갑, 행운을 부르는 캐리어 벨트 등이다.

무대에서 펼쳐지는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피아니스트 양방언이 선사하는 깊은 사유의 시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극장 용에서

<초월:transcendence>을 9월 7일부터 8일까지 선보인다.

<초월:transcendence>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사유하는 극장’ 네 번째 시리즈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인 <반가사유상>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양방언이 2023년 ‘사유’를 테마로 창작한 3곡에 더해 추가 창작곡, 그리고 사유의 의미로 재해석한 기존의 대표곡 및 국립중앙박

물관 전시를 주제로 창작한 악곡을 선보인다.

또한 연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크리스천스> 등을 연출한 민새롬이 ‘사유’의 테마에 맞춰 미디어 아트, 조명, 무대 디자인을 구성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이번 공연에 맞춰 ‘사유의 방’을 주제로 하는 뽀즈도 출시한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박물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유하는 극장 <초월:transcendence>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관람 연령 8세 이상
기간	2024년 9월 7일(토)~9월 8일(일) 오후 3시, 총 2회	예매 인터파크티켓
시간	80분(인터미션 없음)	문의 인터파크티켓(1544-1555), 국립박물관문화재단(1544-5955)

국립박물관 인사동정(7.16.~8.15.)				
전입	2024-07-29	공입주사보 송도석 교육부	→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2024-08-01	행정주사 송우희 문화체육관광부 휴직	→	국립익산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08-12	행정주사보 진완 부산국악원	→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
	2024-08-14	서기관 이수원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장	→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장
승진	2024-07-26	방호서기보 박재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방호서기
	2024-08-07	방호서기 유영만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방호주사보
전출	2024-07-29	공입주사보 윤성신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	교육부
전보	2024-07-22	학예연구관 최환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실	→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지원 근무	2024-08-12	시설주사 박준성 부산국악원	→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파견 복귀	2024-08-14	학예연구사 권혜은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복귀
복직	2024-07-31	행정서기보 김전혁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복직
	2024-08-01	학예연구사 박혜선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	복직
	2024-08-03	전문경력관 나군 김은진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	→	복직
휴직	2024-07-30~2025-07-29	학예연구사 강지원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	→	휴직
	2024-07-31~2025-01-30	행정주사보 이경진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운영과	→	휴직
	2024-08-01~2025-01-31	운전서기 김재연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휴직
명예 퇴직	2024-07-22	서기관 윤종석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장		

9

SEPTEMBER

10

OCTOBER

11

NOVEMBER

12

DECEMBER

1

JANUARY

고대 그리스·로마실 | 2023.6.15.~2027.5.30.
〈진원 영수사 폐불〉 | 2024.5.1.~10.13.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 2024.6.18.~10.9.
〈탈항아리를 만든곳, 금사리〉 | 2024.6.25.~2025.6.22.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심화전 〈독립을 향한 까지지 않는 불꽃, 나석주〉 | 2024.7.26.~10.9.
〈고려시대 상형창자(가제)〉 | 2024.11.26.~2025.3.3.
〈비엔나 모더니즘의 탄생(가제)〉 | 2024.11.29.~2025.2.23.
〈수장고에서 찾은 보물(가제)〉 | 2024.12.10.~2025.2.23.

경주

광주

전주

대구

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조물조물 꿈을 빛는 도자기〉
아시아도지문화, 역사문화 1,2
〈도자기, 종류를 풀다〉 | 2024.6.21.~9.26.
〈서예, 일상에서 예술로〉 | 2024.6.27.~2025.2.28. | 인천공향박물관
〈서울구경 기저스라, 인물배와 갈까부다 - 조선의 베스트셀러 함양기와 총합전〉 | 2024.10.1.~2025.1.5.
〈고 이견회 화장 기증 대구 경북의 국보와 보물〉 | 2024.7.9.~2025.6.29.
개관 30주년 특별전 〈한국의 신발, 발과 신〉 | 2024.5.14.~9.22.
옥외전시장 재개장 | 2024.8.26.~
옥외 석조문화유산 정원 〈수호의 정원〉 | 2024.9.10.~
〈상상의 동물사전-백제의 용마〉 | 2024.9.10.~2025.2.9.
〈사기장沙器廠, 흙을 빚어 삶을 이롭게〉 | 2024.10.2.~2025.2.23.
〈기록, Map of You〉 | 2024.6.25.~11.3.
〈히타이트〉 | 2024.10.8.~2025.2.2.
옥외정원 〈동자상 조각 정원〉 | 2022.11.11.~
이상항으로의 초대 〈금강산과 관동팔경〉 | 2023.12.5.~
〈지금 여기, 휴(休): 한국인의 이상향〉 | 2020.12.15.~
〈이느 수집가의 초대〉 | 2024.9.11.~11.24.

경주

광주

전주

대구

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 2021.12.21.~2024.12.31.
〈국립나주박물관 다시, 열다〉 | 2023.12.15.~
〈무덤에서 비친 빛, 겨울(가제)〉 | 2024.10.8.~2025.2.9.

경주

광주

전주

대구

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 2021.12.21. ~ 2024.12.31.
 <국립나주박물관 다시 열다> | 2023.12.15. ~
 <무덤에서 바친 빛, 겨울(겨레)> | 2024.10.8. ~ 2025.2.9.
익산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공동기획전 (바다 위의 성, 군산근대)> | 2024.9.10 ~ 11.24.
 <미륵사지 불도 지미 -제각, 폐기- 복원의 기록> | 2024.10.22. ~ 2025.3.3.

교육프로그램(세목)	일시	장소
<p>〈공간 오감〉 여기, 우리, 반가시(유상)</p> <p>9.3.~9.28. 매주 화·목·토 10:00~11:30 / 14:00~15:30</p> <p>공간 오감</p>		
<p>박물관 전문지 체험교실</p> <p>9.23.~9.30. 매주 월</p> <p>온라인</p>		
<p>문화어울림(병원학교)-박물관 탐험대</p> <p>8.21.(수)~12.11.(수)</p> <p>병원학교</p>		
<p>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p> <p>6.18.(화)~10.6.(일) 상설</p> <p>특별전시실</p>		
<p>특별전 〈三圖三色-동아시아의 칠기〉</p> <p>7.10.(수)~9.22.(일) 상설</p> <p>특별전시실</p>		
<p>【유아】초등 저학년】어린이박물관 상설전 연계 교육</p> <p>9.3.(화), 9.10.(수), 9.24.(화) 10:30~11:30 / 13:30~14:30</p> <p>어린이박물관 오픈 랩스</p>		
<p>【특별전 연계 자율활동】어린이박물관학교</p> <p>9.4.(수), 9.11.(수) 10:00~17:00</p> <p>특별전시실</p>		
<p>【초등학교 단체】 교과서 속 문화유산 ‘모여봐요, 토우마!’</p> <p>9.4.(수), 9.11.(수), 9.25.(수) 10:00~11:00</p> <p>강당(온라인)</p>		
<p>【노년층 단체】 박물관 백세 청춘 마당</p> <p>9.5.~9.26. 매주 목 14:00~16:00</p> <p>지역 노인 복지시설, 수목당</p>		
<p>【유아】초등 저학년】 뽀뽀 박물관 놀말기차</p> <p>9.7.~9.29. 매주 토·일 10:00~17:50</p> <p>어린이박물관</p>		
<p>【성인】 큐레이터와의 대화</p> <p>9.25.(수) 17:00~17:30</p> <p>신라역사관</p>		
<p>제18기 광주어린이박물관학교</p> <p>9.7.~9.21. 지정 토요일</p> <p>교육관 체험학습실 전시실</p>		
<p>고려창자 몸타주</p> <p>9.10.~9.24. 지정 화요일</p> <p>교육관 체험학습실</p>		
<p>특별전 연계 뮤지엄 토크</p> <p>9.4.~11. 지정 수요일</p> <p>교육관 체험학습실</p>		
<p>제34기 광주박물관대학 〈지역공간, 서양미술사2〉</p> <p>9.25.(수)</p> <p>교육관 대강당</p>		
<p>문방사우를 찾아라!</p> <p>9월 매주 수·목 10:00~11:00</p> <p>어린이박물관, 교육육실</p>		
<p>2024 서예인문학</p> <p>9.25.(수)</p> <p>강당</p>		
<p>우리를 보물찾기</p> <p>9월 매주 토</p> <p>상설전시실</p>		
<p>아주 특별한 순간으로의 여행</p> <p>9월 상시</p> <p>어린이박물관</p>		
<p>【유아 단체】 개구쟁이들의 박물관 여행</p> <p>9.3.~11.28. 매주 수·금 10:30~11:30</p> <p>꿈마루</p>		
<p>【초등 단체】 교과서 속 문화유산 이야기</p> <p>9.4.~11.29. 매주 수·금 10:00~11:30</p> <p>문화사랑방, 강당</p>		
<p>【초등 가족】 신나는 박물관</p> <p>6.1.~9.21. 매주 토 10:00~11:30</p> <p>문화사랑방</p>		
<p>【관람객】 문화유산 그림만화</p> <p>9월 매주 토 14:00~16:00</p> <p>해설관 로비</p>		
<p>【자랑봉사자】 자원봉사자 문화답사</p> <p>9.25.(수) 9:00~18:00</p> <p>공주시</p>		
<p>9차 온(ON) 가족 신신놀이</p> <p>9.27.(금)~9.30.(월) 기간 중 자율선택 2기인 온라인</p>		
<p>온라인 실시간 '세계적인 걸작, 백제금동대향로'</p> <p>9.26.(목) 10:00~12:00</p> <p>온라인</p>		
<p>온라인으로 즐기는 '도전! 백제금동대향로 박사'</p> <p>9.1.(일)~9.30.(월)</p> <p>온라인</p>		
<p>친구랑 신신놀이</p> <p>9월 중 예약제</p> <p>온라인</p>		
<p>유 퀴즈? 관찰하GO생각하GO</p> <p>1.12.(수)~12.31.(화)</p> <p>상설전시실</p>		
<p>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무궁왕을</p> <p>9월 매주 화·목</p> <p>온라인</p>		
<p>교과서에서 나온 문화유산</p> <p>4.3.(금)~11.30.(토)</p> <p>유적지 현장</p>		

교육포그렐(계육)	일시	장소
무령왕을 교과상자 대어 '무령왕이 되어보자'	4월~12월	초등학교
제6기 공주박물관대학 - 공주초에서 공주Princess.를 만나다	9.11.(수)	강당
모두 같이 즐겨요	9.20.(금)	전시실, 세미나실
우리 학교에 찾아온 무령왕	9.25.(수)	서천 시초초등학교
특별전시 연계 체험 '우리가족 공작생활-백제 의사전'	9.21.(토)	기획 전시실, 세미나실
큐레이터에게 듣는 <상상의 동물사전-백제의 용>	9.25.(수)	기획전시실
플레이터와 함께 하는 박물관 탐험	9월 매주 목 10:30~11:10	교육실 전시실
이 팀은 어디에서 왔을까?	9월 매주 수·금 10:00~10:40	교육실 야외 전시실
조선 수군 체험	9월 매주 화~일 10:00~17:00	어린이 임진왜란 체험실
박물관에서 꿈을 찾아	9월 매주 화~금 10:00~12:00	교육실
제20기 하반기 박물관대학	9.19~11.28. 매주 목 14:00~16:00	강당
석신로드 (AR콘텐츠)	상시	야외정원
Map of You(특별전 교육 공간)	6.25.(화)~11.3.(일)	특별전시실
제16기 어린이 토요박물관학교	9.21.(토)	세미나실
제22기 박물관 연구과정	9.26.(목)	소강당
큐레이터와의 대화	9.26.(목)	상설전시실
가야나라 공작소 정선구편	9.3(화), 10(화), 24(화) 10:00~11:00	어린이박물관 영상체험실
알에서 태어난 수로왕	9.6(금), 7(토), 13(금) 10:30~11:30	어린이박물관 인형극장
김해	9.12(목), 26(목), 28(토) 10:00~11:30	어린이박물관 영상체험실
오늘은 내가 주인공!	9.7(토), 21(토) 10:00~11:00	어린이박물관 영상체험실
안녕 가야, 해상왕국편	9.25.(수) 16:00~17:00	상설전시실
큐레이터와의 대화	9월 매주 수·목·금	교육실
박물관 탐구생활	9월 중	각급 학교
제주	오양가람 박물관	교육실 전시실
노영나영 고치글라	9.7.(토), 9.21.(토) 14:00~16:00	교육실 전시실
초미, 노인 장애의 군인단체 <박물관 처음 만나기>	9.24(화), 9.25(수), 9.27(금) 10:00 / 14:00	주축배움터
추천	동등5~6학년, <제17기 어린이박물관학교>	교육실
인문예술행림강좌, <아름다운 나눌 - 공유와 공작>	9.7.(토), 9.21(토) 9:30	강당
큐레이터와 함께 문화유산 산책, <춘백명품아보기>	9.12(목), 9.26(목) 14:00	문화홀이더
[유아] 반짝반짝 금동관 이야기	9월 매주 수 10:00~11:20	체험학습실, 전시실
[초등계승] 박물관에서 배우는 역사여행	9월 매주 화·목·금 10:00~11:30	체험학습실, 전시실
[소왕제승] 함께 가요, 박물관 나들이 / 박물관에서 소풍!	9월 매주 화~금 14:00~15:30	체험학습실, 전시실, 야외예
나주	박물관에서 소풍!	합정
[가족] 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9월 매주 토·일 10:30 / 14:00 / 16:00	어린이박물관
[성인] 박물관에서 배우는 팸플릿	9월 매주 목 10:00	행복학습센터
제27기 역사어린이박물관학교	9.14.(토), 9.28.(토)	어린이박물관
도솔이와 함께 떠나는 미륵사 시간탐험	9월 매주 토 14:00~16:00	어린이박물관
익산	9.1.(토)~9.29.(일) 주말 및 공휴일 10:00~17:00	상설전시실

가을 색을 듬뿍 머금은 공연

9월에는 가을의 색을 듬뿍 머금은 공연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온다.
‘음악그룹 오롯’과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은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색을 표현하는 예술가들이다.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찾아온 가을, 가을을 닮은 이들이 전하는 음악에 흠뻑 빠져보자.



국립중앙박물관 × 음악그룹 오롯

일시: 2024.9.21.(토) 오후 3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석조물 정원
음악그룹 오롯은 2인의 멀티 악기 연주자로 이루어진 창작음악그룹이다. 전통음악에 기반하여 일상에서 얻는 다양한 감정과 이미지를 여러 음색의 악기에 반영한 음악을 선보이며, 그들의 언어로 대중들이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담아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정동극장 예술단

일시: 2024.9.28.(토) 오후 3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은 한국무용, 사물놀이, 타악 등 다채로운 전통 예술이 어우러진 연희단체다.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과 정신적 가치를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며, 관객들과 소통을 추구한다.



2024년 9월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91회	18:00~18:30	19:00~19:30
9.4.	중·근세관	특별전시실
	조선후기 궁궐 장식 그림 조선 I 실(117호) 보존과학부장 천주현	특별전 <동아시아의 칠기>(9) 특별전시실(121호) 세계문화부 오세은
	세계문화관	으뜸홀
	위구르인들이 베제클리크 석굴사원에 남긴 기록 중앙아시아실(307호) 세계문화부 권영우	상설전시 연계 어린이 활동지 '유행로-시대의 유행을 찾아서' 으뜸홀 어린이박물관과 정민영

792회	18:00~18:30	19:00~19:30
9.11.	세계문화관	특별전시실
	위구르인들이 베제클리크 석굴사원에 남긴 기록 중앙아시아실(307호) 세계문화부 권영우	특별전 <동아시아의 칠기>(10) 특별전시실(121호) 세계문화부 전인지
	기획전시실	기증관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7) 기획전시실 전시과 김혁중	이홍근 선생 기증품으로 본 한국의 도자 문화 기증 II 실(207호) 세계문화부 이정인

9.18.	추석 연휴
-------	-------

793회	18:00~18:30	19:00~19:30
9.25.	중·근세관	조각공예관
	심화전 <독립을 향한 꺼지지 않은 불꽃, 나석주> 대한제국실(120호) 고고역사부 유새롬	황복사터 금제불입상과 아미타불좌상 불교조각실(301호) 미술부 양수미
	기증관	조각공예관
	기증관 둘러보기 기증 I 실(208호) 세계문화부 김혜경	글자가 새겨진 도자기 청자실(303호) 교육과 강경남



webzine.museum.go.kr

포지 이야기

국립중앙박물관은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 〈메소포타미아, 저 기록의 땅〉을 2022년 7월 22일부터 세계문화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기원전 3500년대에서 기원전 500년대의 문화유산에는 메소포타미아인들의 관심사와 세계관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9월 29일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으로 돌아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남은 한 달간 마음껏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